



천성행 철도  
The Celestial Railroad

너새니얼 호손 지음  
케이텍문고편집실 옮김

# THE CELESTIAL RAILROAD

Hawthorne, Nathaniel

## 천성행 철도

---

얼마 전에 나는 꿈의 문을 지나서 지구상의 한 지역, 저 유명한 장망성<sup>1</sup>을 방문했다. 일부 주민의 공공 정신의 발로로 이 사람망고 번성하는 도시에서 천성<sup>2</sup>으로 가는 철도가 부설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흥미가 생겼다. 시간이 좀 난 김에 그곳으로 가는 여행이라도 하면서 이는 호기심을 충족해 볼까 하였다. 그리하여, 어느 화창한 날 아침, 호텔 숙박비를 계산하고 포터에게 마차 뒷칸에 짐을 실으라고 한 뒤 마차에 올라 역으로 출발했다. 운 좋게도 일소평탄<sup>\*3</sup> 씨라는 신사분과 동행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천성에 실제 가본 적이 없으면서도 그곳의 법률, 풍속, 시책, 통계수치를 자신이 태어나 자란 장망성만큼 잘 아는 것 같았다. 게다가 그는 철도 회사의 운영진이면서 대주주여서 그 덕에 그 감탄스러운 사업에 대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마차는 덜컹거리며 도시를 빠져나와 교외를 벗어나 조금 더 가서 품위있게 지은 다리를 건넜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뭐랄까 약간 약해 보여서, 하중을 충분히 견딜 것 같지 않았다. 다리의 양쪽 끝

---

<sup>1</sup>City of Destruction. 기독교도(Christian)와 그의 처 기독교여도(Christiana)가 살던 도시. 장차 하늘불로 불살라질 멸망이 예견된 도시였다. <sup>2</sup>Celestial City. 기독교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이다. 천상의 도시. 천국. <sup>3</sup>Smooth-it-away. 인명 또는 지명 끝에 \*표지를 붙인 것은 천로역정에 등장하지 않는 이 소설의 인물 또는 장소임을 나타낸다.

사이에 가로놓인 커다란 수렁은 보기에도 불쾌하고 냄새도 고약해서 지상의 모든 하수구에서 뱉어낸 오물이 거기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일소평탄\* 씨가 말하기를, “이게 바로 저 유명한 우울니<sup>4</sup>라오. 우리 주민에게 정말 불쾌한 곳이지요. 아주 쉽게 단단한 토지로 바꿀 수 있을 텐데도 이 모양이니 더 수치스럽소이다.”

내가 답했다. “제가 알기로 기억도 안 나는 예전부터 그렇게 하려고 애썼다고 하더군요. 번연 씨가 2만 수레의 교훈을 들이부어도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했더랬지요.”

“당연하오! 그따위 쓰잘데기없는 교훈따위로 뭘 기대할 수 있단 말이오?” 일소평탄\* 씨가 외쳤다. “이 편리한 교량을 보시오. 다리를 짓는 데 충분한 기초를 마련하려고, 도덕에 관한 책, 프랑스 철학, 독일 합리주의에 관한 책과 함께 현대 종교인의 소책자, 설교, 에세이는 물론이고 플라톤, 공자, 힌두 현자들이 남긴 말을 모으고 성경 주석까지 합쳐서, 과학적 처리를 거쳐 단단한 돌덩어리로 만들어 이 늪지에 들이부었다고. 이곳 전체를 비슷한 물질로 메울 수 있을 거요.”

그러나 일소평탄\* 씨의 기초가 단단하다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나에게서는, 정말로, 다리가 흔들려서 엄청난 기세로 아래위로 요동

---

<sup>4</sup>기독교도가 장망성을 나와 이천이와 함께 빠졌던 구덩이. Despond. 낙심의 높이라고도 한다.

하는 듯했다. 승객들이 이 신사분과 나처럼 무거운 짐을 제각기 가지고 타서 만원이 된 승합마차로는 도저히 건널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도 별다른 사고 없이 다리를 지나 곧 역사에 도착했다. 이 깔끔하고 넓직한 건축물은 작은 좁은 문<sup>5</sup>이 있던 부지 위에 세워졌는데, 옛 순례자들이라면 기억하겠지만 예전에는 이 문이 큰길을 가로막고 있는 데다 좁아서 개방적 마음을 지니고 배 나온 여행자에게 걸림돌이 되어 불편을 끼쳤다. 기독교도의 옛 친구로서 순례자에게 신비로운 문권을 나누어주던 전도가 지금은 매표소에서 발권 업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약한<sup>6</sup> 번역 씨의 책을 읽은 사람은 기쁠 것이다. 심보 고약한 사람 일부가 이 훌륭한 인물과 예전 전도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심지어 그 사기행각을 입증할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는 척하기도 했다. 나 자신은 이 논쟁에 끼어들 마음이 없고 다만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승객에게 지급되는 네모반듯한 두꺼운 종이조각이 옛날의 그 두루마리식 양피지 문권보다 훨씬 편리하고 유용하다고 본다. 그러나 천성 문에서 순조롭게 수납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떨지 알지 못하겠다.

수많은 승객들이 이미 역사에서 차량의 출발을 대기하고 있었다. 이들의 표정과 몸가짐으로 볼 때 천성행 순례 여행에 대해 대중들

---

<sup>5</sup>wicket gate. 천성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 기독교도에게 전도가 맨처음 가라고 한 곳이다. <sup>6</sup>요한, John

이 매우 호의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번연 씨가 이것을 알게 되면 기뻐했으리라. 외롭고 남루한 남자가 등에 커다란 짐을 진 채로 슬픔에 잠겨 온 도시의 비웃음을 감수하고 오로지 걷는 모습 대신, 이제 이곳에는 최상류층 출신의 단체 여행객과 이 지역 유지들이 마치 여름휴가라도 보내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천성 여행을 기대하고 있었다. 신사분들 중에는 저명한 시의 집정관들, 정치가들, 부자들이 있어 이들의 신앙심으로 말하자면 가히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숙녀분들 중에서도 사교계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어 천성 사교계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하여 흡족했다. 오늘 뉴스, 사업상 담화나 정치담론, 그밖에 가벼운 예능 분야, 종교 분야의 이야깃거리들을 서로 나누었는데 신앙 관련된 깊은 이야기는 심중에는 가장 중요한 화제이겠으나 일부러 배경지식 정도로만 자리잡았다. 불신자라 하더라도 신경을 건드리는 얘기라면 전혀 듣지 않으려 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순례여행의 새로운 방식이 가진 편리성을 하나는 꼭 언급해야겠다. 예전에는 등짐으로 날라야 했던 수하물은 화물칸에 아담하게 실리며, 들은 바로는 여행이 끝날 때 소유자에게 각기 전달될 것이라 한다. 그리고 특기할 사항이 있는데, 예전 별서복<sup>7</sup> 임금과 좁은 문 지키는 사람 사이의 오랜 불화 때문에 진정한 순례자가 문을 두드릴 때에 별서복의 줄개들이 화살을 심하게 쏘아댔다는 것을

---

<sup>7</sup>Beelzebub. 마귀의 왕이다. 게일 역본에 별서복 또는 살단(Satan).

기억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유지 양반들과 현명한 철도 경영진이 나서서 힘쓴 덕에 이 분쟁은 서로간 타협의 원칙에 따라 평화롭게 조정되었다.

마왕 소속이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철도역사에 고용되어 화물을 관리하거나 기차 동력용 연료를 조달하는 등 적절한 직무를 맡아 근무한다. 양심적으로 단언컨대, 이들보다 더 근면하고 지시를 잘 이행하며 승객에게 친절한 직원을 다른 어떤 철도에서도 찾지 못할 것이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오래된 난관이 만족스럽게 조정되었다는 것에 찬사를 보낼 것이 틀림없다.

내가 물었다. “그런데, 담대<sup>8</sup> 씨는 어디 계십니까? 이 유명인사를 차장으로 철도 회사에서 임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아, 그게요,” 일소평탄\* 씨가 헛기침을 하면서 말했다. “그에게 제안이 간 것은 제동수<sup>9</sup> 자리였다고. 실은, 우리 좋은 친구 담대 씨가 그만 나이 들어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이 되어버렸소. 점점 순례자들을 도보로 유도하는 때가 많아지더니 결국 도보 이외의 방식으로 순례하는 것을 죄악이라고 여기기 시작한 거요. 게다가 이 늙은 친구는 별서복 마왕과의 태곳적 분쟁에 너무 깊이 물들어서 마왕의 수하 출신에게 욕을 하거나 주먹질을 해댔고 결국 새로

---

<sup>8</sup>Greatheart. 천로역정 제2부의 주역. 기독교의 처와 아이들을 천국까지 안내하면서 많은 영웅적 업적을 남겼다. 특히 절망을 비롯한 거인들을 죽인 업적으로 유명하다. <sup>9</sup>brakeman

운 분쟁거리를 만들어오더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질머리있는 담대 씨가 천성으로 씩씩대며 떠나고 나서 더 적합하고 말잘듣는 사람을 선택할 기회가 생겼을 때 그다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오. 저기 기관사가 오는군. 누군지 바로 알아볼 거요.”

기관차가 그 순간 객차를 끌고 역으로 돌아왔다. 솔직히 말하건대 이때 내가 받은 느낌은 이것이 천성으로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줄 멋진 장치라기보다는 오히려 지하세계로 서둘러 데려가려는 악마적인 기계라는 것이 더 그럴 듯하다는 것이었다. 꼭대기에 한 사람이 화염과 연기에 휩싸여 앉아 있는데, 놀라게 할 생각은 없지만, 쇠덩이로 된 엔진 복부에서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입과 배로부터도 연기와 불길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보고도 믿을 수가 없군.” 내가 소리쳤다. “도대체 이럴 수가! 살아 있는 존재는 맞나요? 타고 앉은 엔진과 형제지간이랍니까?”

“후훗, 뭘 모르시는군!” 일소평탄\* 씨가 즐거이 웃으며 말했다. “아파룬<sup>10</sup>을 모르시겠소? 기독교와 예전에 거결<sup>11</sup> 계곡에서 싸웠던 그 아파룬이오. 그가 바로 기관차를 맡은 기관사요. 순례여행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설득해서 납득시켰소이다. 그리

---

<sup>10</sup>Apollyon.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이의 그리스어식 표현이 아폴리온이다. 요한계시록 9장에 아볼루논이라는 이름의 악마의 수장으로 등장. 천로역정에서 기독교가 이 마귀를 거결(Valley of Humiliation) 땅에서 만나 싸워 이겼다.

<sup>11</sup>Valley of Humiliation. 낮은 땅이다. “멸시의 계곡”이라고도 번역하고 “검손 계곡”이라고도 번역한다.

고 기관장으로 고용했소.”

“브라보! 브라보!” 내가 열렬히 감탄했다. “이 자유 시대의 표상이군요. 거기다, 하려고만 하면 오랜 적대와 편견을 일소할 방법이 있음을 보여준 표징입니다! 자신의 옛 숙적이 이리 변모했음을 알게 되면 기독교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천성에 도착하여 그를 만나면 이 기쁜 소식을 꼭 전해주겠습니다.”

---

승객들이 편안하게 착석하고 이제 열차는 덜컹거리며 즐겁게 진행한다. 예전 기독교가 꼬박 하룻길을 걸어야 했던 거리보다 훨씬 먼 거리를 십 분만에 주파했다. 벽력같이 달리는 열차의 꼬트머리를 슬쩍 보았더니, 거기에 마침 두 명의 남루한 도보여행자가,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등짐을 지고 조가비를 두른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신비로운 양피지 문권을 손에 든 예전 순례자 차림으로 걷고 있는 것을 보니 우습기까지 하였다. 현대의 진보한 방식이 지닌 이점을 이용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길을 따라 비틀거리며 끙끙대며 걷는 것을 고집하는 터무니없이 완고하고 정직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현명한 동행들이 크게 웃었다. 조롱섞인 폭소와 함께 두 순례자에게 인사하였는데,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비통하고 측은해하는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소란스럽게 즐거워했다. 아파룬이 이 놀이에 끼어들어서 기관차로부터 화염과 연기를 일부러 발하여 자신의 숨결을 섞어서 순례자들의 얼굴에



내뿜어 뜨거운 증기로 뒤덮어버리려고 기도하였다. 이 작은 장난으로 우리는 꽤 즐거웠고, 순례자들도 자신들이 순교자가 된 듯하여 만족스러웠을 것이 틀림없다.

열차가 얼마간 더 나아갔을 때 일소평탄\* 씨가 크고 고풍스런 건물을 가리켰다. 보건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던 곳으로 전에는 순례자들이 잠시 머물러가는 곳이었던 선술집이라고 한다. 번연의 안내책자에 효시의 집<sup>12</sup>이라고 언급하는 곳이다.

“저 옛집을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저기는 보시다시피 정차역이 아니요. 그 주인은 철도가 놓이는 것을 결사반대했소이다. 당연한 것이 철로가 그의 휴게소 한쪽으로 부설되면 자연 괜찮은 손님들을 다 빼앗길 터이니. 그래도 보행 도로는 그곳을 지나므로 그 집 주인은 간혹 찾아오는 가난한 여행자를 받아서 그 사람다운 구식 대접을 제공하곤 한다오.”

이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기독교도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짐을 벗었던 장소를 빠르게 달려 지나가고 있었다. 일소평탄\* 씨, 인생세사\*<sup>13</sup> 씨, 심중은죄\*<sup>14</sup> 씨, 미구양심\*<sup>15</sup> 씨 사이에서 이것이 화제가 되었다. 도시 불기회개\*<sup>16</sup>에서 온 이 신사분들은 우리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전하게 된 일의 이점에 대해 상찬하기를 마지않았다. 나쁜 아니라 모든 승객들이 실은 그러한 관점에 동의했다.

---

<sup>12</sup>The House of Interpreter.  
the-heart.

<sup>13</sup>Live-for-the-world.

<sup>14</sup>Hide-sin-in-

<sup>15</sup>Scaly-conscience.

<sup>16</sup>Shun-repentance.

우리 소지품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소중하다 할 귀중품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는 모두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다양한 <습관>이라는 의복을 가지고 있었고 천성에 가서도 점잖은 자리에 입고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귀중한 것이 빈무덤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일 것이다. 이리하여 과거의 편벽된 순례자들의 입장과 현재 우리의 입장을 비교해보는 대화를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즐겁게 이어가는 동안, 곧 간난산<sup>17</sup>의 발치에 이르렀다.

이 바위투성이 산의 산허리에는 터널을 뚫었는데, 감탄할 만한 현대적 시공법으로 높은 아치와 넓직한 이중궤도를 설비하였다. 그러니 땅과 바위가 혹여 허물어내리지 않는 한 이 터널은 건축자의 기술과 사업가를 자랑하는 영원한 기념물이 될 것이다. 부수적이기는 하지만 커다란 이점으로, 간난산에서 캐낸 물질로 거점 계곡을 메우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들어야겠다. 이제 미끄러지면서 불쾌한 계곡을 어렵사리 내려가야<sup>18</sup> 할 필요가 사전에 제거된 것이다.

내가 말했다. “실로 엄청난 발전이군요. 그렇지만 미궁<sup>19</sup>에 초대

---

<sup>17</sup>Mount Difficulty. 험한 산이다. 기독교는 이곳의 정자에서 즐다가 “문권”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 <sup>18</sup>기독교가 미궁을 떠나 거점으로 내려갈 당시 잡을 곳이 없고 미끄러워 몇 번 넘어진 적이 있다. <sup>19</sup>Palace Beautiful. 순례자들이 쉬어가는 아름다운 성이었다.

되어 현지, 경건, 인애 양<sup>20</sup> 등, 순례자를 환대하는 매력적인 젊은 여성분들을 소개받는다면 좋았을 텐데요.”

일소평탄\* 씨가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젊은 여성이라고요?” 한참을 웃다가 겨우 말을 잇기를 “매력적인 젊은 여성이 어디 있던 말이오! 이보시오, 그 사람들은 그냥 노처녀요. 하나같이 새침하고 까탈스럽고 애교없고 융통성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기독교가 순례하던 그 당시 이래로 어느 한 사람 새로운 옷차림으로 갈아입은 적이 없어요.”

내가 말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굳이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되겠군요.”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

---

숙련된 기관사 아파룬은 전일 기독교와 조우했던 재난의 장소에 얽힌 유쾌하지 못한 기억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지 기관차의 속력을 최대한 높이고 있었다. 번연의 여행안내서로 보건대, 나는 우리가 지금 사음곡<sup>21</sup> 계곡까지 불과 몇 마일 남지 않았으며 현재

---

<sup>20</sup>Prudence, Piety, Charity. 미국에서 만난 인물들. 아름다운 여성으로 묘사되어 있다. 흥미롭게도, 게이 역 천로역정에는 이들이 여성인지조차 잘 언급되지 않고 여성적 매력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다만 기산의 삽화에서는 한복을 입은 부인으로 그려진다. <sup>21</sup>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死陰谷. 게이역본에는 “음예”라고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사음곡”을 채택하였다. 어둠 계곡이라 하기도 한다.

속도라면 훨씬 금방 그 음울한 지역에 들어서게 될 것임을 알았다. 사실은 이쪽편 도랑이나 저쪽편 늪에 빠지게 되지는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일소평탄\* 씨와 그런 생각을 털어놓고 대화를 나누었더니 그가 단정하기를 이 지역을 지나는 어려움에 대해서, 아무리 최악을 상정했다지만 너무 과장되어 있으며 현재의 발전상으로는 문명국 어느 철도보다도 안전할 것이니 안심하라고 했다.

말을 나누는 동안 열차는 그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섰다. 이곳에 건설한 독길 위의 철로로 곧두박질쳐 달리는 동안 뭔가 바보같이 쿵쾅거리며 뛰는 심장에게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면서도, 이곳으로 철길을 놓겠다는 그 기발한 발상의 대담성과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긴 독창성에 최고의 찬사를 망설인다면 부당한 것이다. 그리고 감탄할 만한 것이, 영구한 어둠을 광명이 한 줄기도 스며들지 못하던 것을, 용의주도하게도 부족한 빛을 보충하려고 애썼는지 알게 된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토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에 타는 가스를 전송관을 통해 충분할 정도로 모은 다음 선로 전체에 두 줄로 늘어선 가로등에 전달했다. 이리하여 화염과 지옥불길의 저주에서 이 계곡에 영원히 머물 찬란한 빛이 창조되었다. 몸에 해로운 빛이기는 하지만 일견 놀라운 광명을 동료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으로부터 깨달았다. 이런 점에서 자연의 일광과 비교했을 때 진실과 거짓됨 사이의 다름과도 같은 차이를 가지고 있겠지만, 이 칙흑같이 어두운 계곡을 한번이라도 여행해보면, 어떠한 빛이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 이에 감사함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빛을 얻을 수 없다면 이 불타는 땅에서 얻으면 되는 것이다. 이 등은 붉은 색으로 빛나고 있어서 선로 양쪽에 불길의 벽을 세운 것 같았다. 그 사이를 우리는 번개같이 달려나갔고 그 동안 천둥같은 메아리가 선로를 가득 메웠다. 기관차가 탈선하는 참사(이런 전례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라고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는데)가 일어난다면, 바닷없는 구덩이—그런 것이 있다면—가 우리를 틀림없이 집어삼킬 것이다. 이렇게 암울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심장이 요동치는데, 바로 그때 계곡을 따라 질주하는, 마치 수많은 악마들이 허파를 터뜨려가면서 내지르는 듯한 무시무시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열차가 정차역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기관차의 기적소리일 따름이었다.

정차한 곳은, 진실한 사람이기는 해도 헛공상에 물들어 있던 우리 친구 번연 씨가, 차마 내 입으로 꺼내기 민망한 노골적인 표현으로 “지옥의 입구”라고 지칭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러나 일소평탄\* 씨에 따르면 이견 착각이었다고 한다. 그는 우리가 시뻘쩍고 연기 자욱한 공동 안에 있는 틈을 타서 토펫<sup>22</sup>이라는 것이 은유적으로 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곳은 그저 휴화산의 분화구이며 경영진들이 지시하여 이곳에서 철괴를 만들어 선로에

---

<sup>22</sup>히브리어로 “지옥”을 뜻하는 말 중의 하나. 이사야서 30장 33절 참조. 이 단어는 전도와 기독교의 대화에서 나오고 게일 역본에서는 “지옥”이라 했다.

쓸 철을 제조하도록 했다고 하여 우리를 안심시켰다. 이제부터 기관차 엔진에 쓰일 연료도 풍부하게 얻어낼 것이라고 하였다. 그 넓은 동굴 입구의 암울하고 어두컴컴한 곳을 들여다 본 사람이라면, 거무스름한 불꽃의 거대한 혀를 날름거리고, 이상하고 반쯤 생기다 만 괴물들과 연기로 둘러싸인 끔찍할 정도로 기괴한 얼굴의 환영을 본다면, 끔찍한 증얼거림과 비명소리, 그리고 때로 무슨 말인가 분명하게 내뱉는 듯한 낮고 오싹한 바람소리를 듣는다면, 일소평탄\* 씨의 편안한 해명을 탐욕스럽게 의지하려 들 것이다. 우리는 그랬다. 게다가 그 동굴의 주민들은 거무스름하고, 연기와 그을름에 더러워져 있었고, 발 모양이 기형으로 일그러졌고, 눈은 마치 그들의 심장에 불이 붙어 위쪽 창문 밖으로 타오르는 것처럼 검붉어서 대체로 볼품없고 추했다. 괴철을 만드는 곳에서 일하는 인부들과 연료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잠시 숨을 돌리는 동안 나는 그들이 입과 콧구멍으로 연기를 단호하게 뿜어내는 기이한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다.

기차 주변에 일없이 서 있는 남자들 대부분은 분화구의 불꽃에 불을 붙인 시가를 빼꼼거리고 있었는데, 내가 알기로 분명 전에 기차를 타고 천성으로 출발했던 몇몇 사람이 있음을 보고 나는 당황했다. 그들도 거무스레하고 거칠고 연기에 찌들어 보였으나, 이곳 실제 원주민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었으니, 고약한 마음씨로 남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나쁜 성향이 생겨 그런 습관으로 인해 얼굴이

일그러진 채 굳어 있다는 점이였다. 그들 중 한 사람 방신태평<sup>\*23</sup>이라는 이름으로 통하는 게으르고 쓸모없는 사람과는 말을 주고받을 만한 사이였기에 그를 불러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다.

“천성으로 간다면서 떠나지 않았던가요?”

“그랬더랬지. 그렇지만 좋지 못한 소식을 듣고 굳이 힘들게 천성이 있는 산을 기어오르는 수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네. 거기 가봤자 할 일도 없고 재미난 일도 없다더군. 술 담배도 못하고. 게다가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교회음악을 연주해야 한다던데. 집도 주고 자유롭게 살게 해준다고 하지만 나는 그런 곳에서 살기 싫네.” 방신태평\* 씨가 담배연기를 조심성없이 내 눈에 내뿜으면서 말했다.

“그런데 말이오, 방신태평\* 씨, 왜 다른 곳 다 두고 이곳에 정착한 거요?” 내가 큰소리로 물었다.

“아, 그건 말이지, 이 근처가 아주 따뜻하거든. 거기다 예전 알던 사람도 많이 만나고. 나한테 딱 맞는 곳이야.” 이 부랑자가 눈을 찡긋하며 말했다. “조만간 자네도 다시 오면 좋겠군. 좋은 여행 하거나.”

그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기관차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승객 몇 명이 내렸으나 열차에 오르는 사람은 없었고, 우리는 다시 달려 나갔다. 열차가 계곡을 덜컹거리며 지나는 동안 나는 조금 전처럼

---

<sup>23</sup>Take-it-easy. 만사 대충 살면 된다는 뜻.

강렬하게 빛나는 가스등 때문에 눈이 부셨다. 그런데 밝기가 매우 강하여 생기는 주위의 어둠 속에는 때때로 개개인의 죄악 혹은 사악한 열망을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낸 불길한 얼굴들이 빛의 장막 사이로 모습을 내비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는 진로를 방해하려고 거대하고 거무튀튀한 손을 내뻗는 듯했다. 마치 그것들이 나를 섬뜩하게 하려는 내 자신의 죄악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다. 분명 상상이 만들어낸 기이한 현상 그 이상이 아니며 진심으로 부끄러워 할 한낱 망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어둠 계곡을 지나는 동안 내내 나는 그와 똑같은 종류의 공상으로 고통받고 괴롭힘당했으며, 서글플 정도로 당황스러웠다. 이 지역의 유해한 가스가 두뇌를 마비시키는 것일 터이다. 그러나, 자연의 날빛이 가스등의 어슴푸레한 빛과 싸우기 시작하면서 이 공허한 상상은 생생함을 잃어갔으며 마침내 사슴곡을 벗어나자 반겨주는 첫 햇살과 함께 완전히 사라졌다. 계곡을 벗어나 일 마일도 못 가서, 나는 그 음울한 지역을 통과한 일이 모두 꿈이었다고 맹세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약한 번연이 언급한 대로 계곡 끝에는 동굴이 있는데, 그 시절 그곳에는 패백<sup>24</sup>과 해살<sup>25</sup>이라는 두 잔인한 거인이 살면서, 순례자를 무참히 죽여 그 뼈를 동굴 주변에 흩뿌려두었었다. 이 사악하고 늙은 혈거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황량하게 빈 동굴에 지금은 또 다른 끔찍한 거인이 들어앉아, 진실된 여행자들을

---

<sup>24</sup>Pope. 로마 교황.      <sup>25</sup>Pagan.



붙잡아 연기, 안개, 달빛, 생감자와 톱밥으로 가득한 식사를 식탁에 올려 살찌운 뒤에 잡아먹는 것을 일삼고 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거인으로서, 초월주의자 거인<sup>\*26</sup>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그의 체형, 용모, 성격, 본질, 그리고 그의 일반적 기질에 관해서, 그 자신은 물론, 누구도 그것을 묘사해줄 수 없다는 것이 이 거대한 악당의 가장 큰 특징이다. 열차가 동굴 입구를 빠르게 달려 지나는 중, 우리는 그를 얼핏 볼 수 있었는데, 다소 균형이 맞지 않는 체격이기는 하나 마치 안개로 된 거뭇한 덩어리 같은 모습에 가까웠다. 거인이 뒤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굉장히 이상한 말투여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격려하는 건지 헐박하는 건지조차 알 수 없었다.

---

날이 저물어, 기차는 천둥같은 소리를 내며 옛 도시 허화시<sup>27</sup>에

---

<sup>26</sup>Giant Transcendentalist. 1820-30년대 (호손의 시대) 뉴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잠깐 유행했던 철학사조. 인간과 자연은 그 자체로 선한 것으로 생각하여,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자기의존적인 개인으로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한다. 미국의 자연을 유럽의 문명과 대조시킨 사상. 윌리엄 헨리 채닝, 랄프 에머슨 등이 이 사조를 대표한다. 일부 한국어 번역서에 “독일 출신의 철학자”라고 한 것을 보았는데, 어느 유력한 출판사의 영향력있는 번역가가 이 말을 쓴 이래로 국내 모든 번역이 이를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초월주의는 독일의 사상이 아니라 신생국 미국의 사상이다. <sup>27</sup>the City of Vanity. “허영의 도시”. 큰 시장이 있는 곳으로 예전 진충(Faithful)이 불타 죽은 곳이다.

도착했다. 허화시의 저자<sup>28</sup>는 여전히 번영의 절정이며 해 아래 무엇이 가장 찬란하고 즐겁고 매혹적인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곳에서 꽤 오래 머무를 작정이었으므로, 마을 사람들과 순례자 사이에 더이상 화합이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뻐했다. 그러한 화합의 부족으로 인해 여태 마을 주민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진충을 불타 죽는 순교로 내모는 일과 같은 개탄스러운 잘못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와 반대로, 새롭게 철도가 놓이면서 무역이 활발해지고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유입되면서 허화시 영주와 지도층이 철도 사업의 후원자가 되고 도시의 자본가들은 대주주가 되었다. 많은 승객들이 천성으로 가지 않고 그 대신 이곳에 남아 시장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이익을 얻는다. 사실 이런 매력으로 인해 사람들은 흔히 이곳을 진정한 유일한 천국이라고 단언한다. 다른 천국은 없고, 여기서 더 멀리 가보려는 사람은 단지 몽상가에 지나지 않으며, 만약 천성의 전해져오는 대로의 찬란함이 허화시의 문으로부터 불과 1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해도 그리로 가려는 명칭이는 없을 거라고 단언한다. 이런 과장된 찬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 도시에 유하는 것은 대체로 즐겁고, 이곳 주민들과의 교류가 아주 유쾌하고 유익한 것이라고

---

<sup>28</sup>Vanity Fair. 게일역 천로역정은 City of Vanity와 Vanity Fair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둘 다 허화시라고 한다. 이 전통을 따라서 이 번역에서도 이 둘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기로 하였다. 문맥을 따라 읽으면 될 것이다.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

천성적으로 진지한 성향인 나는 대부분 방문객의 목표인 활기넘치는 즐거움보다는 이곳에 거주하여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점에 관심이 쏠렸다. 만약 번연 시대 이후의 이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기독교 독자라면, 거의 모든 거리에 교회가 있고, 목사님들이 허화시보다 더 높은 존경을 받는 곳이 세상에 없다는 말을 듣고 놀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존경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지혜롭고 고결한 격언은 고대의 현명한 철학자들의 말과 같이 깊은 영적 근원에서 나오며, 숭고하고 종교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높은 평가에 값하는 분들로, 유천유심<sup>\*29</sup> 목사님, 진전전도<sup>\*30</sup> 목사님, 훌륭한 노장 목회자로서 조만간 사임하고 피사명일<sup>\*31</sup> 목사에게 설교단을 넘겨줄 것으로 예상되는 차사금일<sup>\*32</sup> 목사님, 신사 만사당황<sup>\*33</sup> 목사님, 차폐영혼<sup>\*34</sup>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한, 박사 설론풍설<sup>\*35</sup> 목사님까지, 이분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저명한 목회자들의 활동은 수많은 강론자들의 도움을 받는데, 그들은 인간과 신학의 모든 주제에 대한 목사님의 다양한 설교를 모두 전파하여 누구든지 설령 글을 모르더라도 폭넓은 학식을 얻을 수 있다. 이리하여 문헌은 에테르화되어 인간의 목소리를 전달하

<sup>29</sup>Shallow-deep

<sup>30</sup>Stumble-at-Truth

<sup>31</sup>That-to-morrow

<sup>32</sup>This-

to-day

<sup>33</sup>Mr. Bewilderment

<sup>34</sup>Clog-the-spirit

<sup>35</sup>Dr. Wind-of-

doctrine

는 매개체가 된다. 그리고 지식은 더 무거운 입자들(당연히 금은 제외)을 바닥에 가라앉혀 소리로 화하여, 즉시 공동체의 열려 있는 귀에 살며시 들어간다. 이 기발한 방식은 불편을 조금도 끼치지 않으면서 누구나 생각하고 학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기계장치를 이루게 된다. 개인의 도덕성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또 다른 종류의 기계장치가 있다. 여러 단체들이 이 장치를 이용하여 덕행과 관련된 온갖 종류의 목적을 이루는 데 뛰어난 성과를 거둔다. 이를테면 개인 각자는 그저 그 단체와 관계를 맺고 자신이 쌓은 덕행을 보통주 형식으로 투자하기만 하면, 사장과 이사들이 그 총액이 불어나도록 잘 관리하는 식이다. 천재적인 일소평탄\* 씨 덕분에 나는 이 모든 일과 윤리, 종교, 문학 분야에서 일어난 놀라운 발전을 잘 이해하게 되었으며, 허화시에 크게 감탄하였다.

인간이 사업을 벌이고 즐거움을 누리는 이 거대한 도시에 대한 나의 관찰을 기록한다면 얇은 책이 유행하는 요즘같은 시대에 가히 한권의 두꺼운 책이 되었을 것이다. 이곳에는 엄청나게 각종 다양한 단체가 있었다. 권력자들, 현자들, 예능인들, 자선가들, 이들이 저마다 시장에 자기 점포를 꾸리고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으면 가격이 어떻든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굳이 매매할 생각이 전혀 없어도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거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꽤 가치있는 일이었다.

내 생각에 아주 어리석은 거래를 하는 구매자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은 한 젊은이는 그 재산 상당 분을 들어서 <재난>을 사들이더니, 결국 그 남은 돈으로 무거운 <회개>와 누더기 옷 한 벌을 사는 데 썼다. 한 아주 어여쁜 소녀는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값나가는 것으로 보이는 수정같이 깨끗한 마음을, 그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닳아빠지고 손상되어 하등 가치없는 다른 보석과 바꾸었다. 한 가게에는 월계수와 은매화로 만든 왕관이 굉장히 많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군인, 작가, 정치가를 비롯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왕관을 사려고 서로 앞다투어 달려들었다. 이 보잘것없는 화관을 사려고 어떤 이는 목숨을 바쳤고 또 어떤 사람은 수년간 고된 노역을 했으며, 자신에게 가장 값진 무언가를 바치고도 결국 왕관을 손에 넣지 못해서 슬그머니 도망치는 자도 많았다. 이곳에는 ‘양심’이라는 일종의 주식 또는 증권이 있었는데, 수요가 많고 거의 모든 상품을 살 수 있는 것이었다. 사실 막대한 금액을 이 특별한 증권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손에 넣을 수 있는 귀중품은 거의 없었고, 모아둔 자신의 양심을 언제 어떻게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한 개인이 사업에서 수익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 주식은 영구적인 가치를 지닌 유일한 자산이었기 때문에 주식을 내놓은 판 사람은 누구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신이 손해를 봤음을 반드시 알게 되었다. 몇몇 투기행위는 의심스러운 성격을 띠고 있었다. 때때로 국회의원이 자신의 유권자를 팔아서 주머니를 채우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공무원들이 자신이 맡은 지역을 싼 가격에 팔아넘겨왔다는 것을 확신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팔았다. 도금한 족쇄는 수요가 많았고 거의 모두를 희생해서 구입했다. 옛 속담에 “노래 한 곡에 뭐든지 판다”<sup>36</sup>는 일을 시장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뜨거운 냄비가 셀 수 없이 많았는데 여기에 담긴 팔죽 한 그릇에 “장자상속권”을 팔려 하는 사람<sup>37</sup>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몇몇 물건에 한해서는 허화시에서 진품을 찾을 수 없는 것도 있었다. 고객이 팔았던 젊음이라는 주식을 되사려 하면 상인들은 의치 한 세트와 적갈색 가발을 내준다. 마음의 평화를 요구하면 그들은 아편이나 브랜디 한 병을 권할 것이다.

천성의 토지와 황금 주택에 대한 권리증서는 종종 허화시에서 몇 년간 임대되는 작고 음침하고 불편한 집과 싼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았다. 별서복 임금 자신이 이런 종류의 거래에 크나큰 관심을 보였는데, 때로는 사소한 문제에 창피함을 무릅쓰고 개입하기도 했다. 한번은 별서복이 한 구두쇠의 영혼을 놓고 흥정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즐거움을 누렸는데, 양측이 교묘한 접전을 펼치더니 결국 폐하가 6펜스에<sup>38</sup> 그의 영혼을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

---

<sup>36</sup>for a song은 매우 값싸게 거래한다는 관용구이다. <sup>37</sup>에사오가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는 창세기 이야기 <sup>38</sup>빅토리아 시기 가장 일반적인 소액 은화가 6펜스였다. 대체로 괜찮은 식당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였다고 하고, 성탄절 푸딩에 집어넣는 관습도 있었다고 한다. 즉, 아주 적은 돈도 아니지만 없어져도 크게 아쉽지 않을 정도의 가치.

마왕은 미소지으며 그 거래에서 자신이 손해를 보았노라 말했다.

---

매일같이 허화시 거리를 걸어다니는 동안 내 태도와 행실은 점점 더 이곳 주민들을 닮아갔다. 이곳이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천성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은 마음속에서 거의 지워졌다. 그런데, 여행을 시작하던 무렵 아파룬이 연기와 증기를 그들의 얼굴에 내뿜고 우리가 마음껏 비웃었던 그 불품없는 순례자 두 사람을 보자, 여행에 대한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그들은 허화시에서도 사람이 가장 뻑뻑하게 밀집된 곳 한복판에 서 있었다. 상인들이 자줏빛 고운 린넨천으로 만든 옷과 여러 가지 보석을 그들에게 들이밀었고, 재담꾼들은 그들을 놀려댔으며 풍만한 여자 둘이 결눈질하면서 추파를 보냈다. 인심좋은 일소평탄\* 씨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지혜로운 말을 속삭이고 새로 지은 예배당을 가리켰다. 그러나 이 완고한 얼굴이들이 그 모든 거래와 기쁨을 완강히 거절했기 때문에 그 광경은 황량하고 기괴해 보였다.

그들 중 한 사람, 고수정로\*<sup>39</sup>가 나를 알아차렸다. 매우 놀랍게도 나는 잘난 체하는 이 사람들을 보며 일종의 연민과 존경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을 걸었다.

“선생아, 네가 자칭하여 순례자라 하느냐?”

---

<sup>39</sup>Stick-to-the-right

그가 슬픔이 묻어나지만 한편 부드럽고 친절하 어조로 물었다.

내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그 호칭에 대한 나의 권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철도를 통해 천성으로 가기로 되어 있고, 이곳 허화시에는 단지 잠시 머무르고 있을 뿐입니다.”

고수정로\* 씨가 말했다. “가련하다, 친구여. 내 하는 말이 진실이라. 간곡히 단언하노니 그 일이 모두 망사라. 네 일생 기차를 타고 수천년을 행하여도 결단코 허화시 경계 너머로는 가지 못할 것이요, 복락의 도성 문에 들어간다고 스스로 믿어도 이는 비참한 망상이리рода.”

다른 한 순례자 도보천행\*<sup>40</sup> 씨가 말했다. “천성의 주께서 이 철도회사의 행사<sup>41</sup>를 용납 않으시고 거절하셨나니, 앞으로도 그리 하시리라. 승객의 한 사람이라도 그가 다스리시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рода. 그런 고로 열차표를 산 자들은 그 표 산 돈, 곧 제 영혼값을 손해볼 것임이나라.”

“허허, 헛소리!” 일소평탄\* 씨가 소리치면서 내 팔을 붙잡고 한편으로 끌고 갔다. “이 작자들이 우리를 비방하였으니 고발하겠소. 허화시의 법률이 엄연하다면 저들이 감옥 창살 사이로 이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이 사건으로 내 마음에 상당한 심려가 생겼다. 그리고 다른 형편

---

<sup>40</sup>Mr. Foot-it-to-Heaven

<sup>41</sup>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의 비준



도 있어 허화시에 아주 정착해야겠다는 생각은 사라졌다. 그렇다고 해도 당연히 열차를 타고 쉽고 편하게 진행하려는 당초 계획을 포기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았다. 게다가, 갈수록 불안해져서 이곳을 빨리 떠나고 싶어지도록 나를 괴롭히는 이상한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이다. 어느 한 사람이 연회장, 극장, 교회, 부자와 유력자를 위한 거래소 등 어디에서 무얼 하든지 거품처럼 사라지더니 그의 동반들 사이에서 더이상 보이지 않았고 그런 일이 사업하고 행락하는 일 못지않게 아주 허다했다. 그런데도 그의 동반들은 그런 일이 매우 사소하다 여기는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히 자기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게도 아무렇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

허화시에서 상당히 오래 머문 후에, 마침내 나는 천성으로 가는 여행을 재개하였다. 일소평탄\* 씨가 여전히 동행해주었다. \*허화시 교외를 벗어나 얼마 가지 않아 옛날 저마<sup>42</sup>가 발견한 은광을 지나갔는데, 이곳은 현재 전 세계의 모든 유통화폐를 공급하면서 큰 이익을 누리고 있었다. 조금 더 가니 라득의 처<sup>43</sup>가 오랜 세월 서 있던 곳이 나왔다. 소금기둥의 모습은 겨우 알아볼 정도였는데,

---

<sup>42</sup>Demas      <sup>43</sup>롯의 아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던 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다. 롯의 아내 소금기둥이 서 있는 곳을 기독도가 지나갔다.

오래 전부터 호기심많은 여행자들이 소금기둥 조각을 떼어 가져가 버렸기에 그렇게 된 것이었다. 이 불쌍한 부인네처럼 모든 후회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이 내려진다면, 포기한 허화시의 쾌락에 대한 나의 갈망은 비슷하게 변화하여 나 자신을 닮은 물적 실체로 남겨져, 뒤에 올 순례자들에게 경고가 되었을 것이다.

그 다음 특기할 것은 거대한 저택이었는데, 이끼 낀 돌로 지어졌지만 현대풍의 경쾌한 건축물이었다. 기관차가 늘 그렇듯이 공포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그 부근에 정차하였다.

일소평탄\* 씨가 말하였다. “이곳은 전에 거인 절망의 성<sup>44</sup>이었던 소이다. 그가 죽은 후에 박신<sup>\*45</sup> 씨라는 사람이 이곳을 수리하여, 지금은 멋진 유흥소로 이용되고 있지요. 우리 정차역 중의 하나라고요.”

“건물이 약간 아귀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약하면서도 무거워 보이는 벽돌을 보면서 내가 한 마디했다. “박신\* 씨가 이 집을 가진 것이 부럽지는 않군요. 언젠가는 사람들 머리 위로 폭삭 내려앉을 것 같은걸요.”

일소평탄\* 씨가 말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다행히 그 위험에서 벗어나겠군요. 아파룬 기관사가 엔진을 다시 작동하기

---

<sup>44</sup>의채(의심의 성)라는 이름이 있는 장소였다. 기독교도와 미도(Hopeful)가 사로잡혀 던전에 갇혔다가 겨우 탈출한 곳이다. 제2부에서 절망은 담대에게 죽는다.

<sup>45</sup>Flimsy-faith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열차는 낙산<sup>46</sup>의 골짜기로 내려가 예전에 맹인들이 무덤 사이를 휘청거리며 헤매고 다니던 평원을 가로질렀다. 어떤 못된 인간이 오래된 묘비를 선로에 내던져놓는 바람에 열차가 심하게 덜컹거렸다. 저 멀리 울퉁불퉁한 바위 산 위에 녹슨 쇠문이 보였다. 덩불과 덩굴식물로 반쯤 뒤덮여 있었는데,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저 산허리에 있는 문이 양치기들이 기독교도에게 지옥으로 통하는 입구<sup>47</sup>라고 했던 바로 그 문입니까?”

“그건 양치기들 사이의 농담이래오. 저건 그저 양고기 햄을 만들기 위한 훈연실로 쓰는 동굴의 출입물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외다.” 일소평탄\* 씨가 말하였다.

---

열차가 미기<sup>48</sup> 땅을 지나는 동안 이곳의 지기 때문인지 아주 잠시 졸음이 덮쳐왔다. 그 덕에 여행에 관한 기억이 여기와서 흐릿하고

---

<sup>46</sup>the Delectable Mountains 즐거움의 산맥. <sup>47</sup>게일 역본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sup>48</sup>the Enchanted Ground. 마법에 걸린 땅. 이 땅에서는 졸음이 쏟아지고 잠들면 횡액을 당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미도(Hopeful)가 잠들지 않으려고 기독교도와 길고 긴 대화를 나누었다.

혼란스러워졌다. 그러나 취지<sup>49</sup> 즉 쾌적한 뿔라에 들어서자 나는 곧 그 졸음에서 깨어났다. 승객들은 서로 눈을 부비며 서로 시계를 맞춰보고 순조롭게 여행이 끝을 앞둔 것에 대해서 서로 축하의 말을 나누고 있었다. 이 행복한 땅의 달콤한 바람이 코로 상쾌하게 들어왔다. 우리는 희미하게 반짝거리며 솟아오르는 은빛 샘을 보았다. 샘 주변에는 천국 정원에서 접목해 온 아름다운 잎과 맛있는 과일이 달린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 있었다. 한번은 우리가 돌풍처럼 나아가고 있을 때, 날개 퍼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천국의 사명을 수행하러 빠르게 날아가는 천사의 빛나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기관차 엔진이 끔찍한 비명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지르며 종착역에 이르렀음을 알렸다. 그 기적소리 안에는 온갖 통곡과 비탄, 슬픔의 울부짖음과 격렬한 분노의 외침이, 분명 제각각 따로따로 분명히 들리면서 악마나 미치광이의 광기어린 웃음소리와 뒤섞여 있는 것 같았다. 여행하는 내내 아파룬은 정거장에 멈출 때마다 재주를 부려 증기기관의 기적에서 가장 끔찍한 소리를 쥐어짜내왔다. 그러나 이 마지막 기회에는 이제껏 해왔던 것보다 훨씬 잘해내는 바람에, 뿔라 주민의 평화로움을 깨뜨릴 뿐 아니라 천성 문까지도

---

<sup>49</sup>뿔라의 땅. 즐거움의 땅으로서, 천성에 들 준비를 하는 순례자들이 거하거나 천성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이사야서 62:4에 나오는 말인데 “혼인하는 여자”를 가리키는 말에서 온 단어로, “회복”이 혼인잔치 같은 즐거운 일임을 상징한다. 그래서 게일 역본에서 娶地라는 번역어를 채택한 것이다.

그 불협화음이 틀림없이 다다랐을 지옥의 부르짖음을 만들어냈다.

끔찍한 외침이 아직도 귀에 울리는 동안, 어디선가 기쁨에 찬 음악소리가 들려 왔다. 그 소리는 높고 깊고 달콤한, 그러면서도 동시에 부드럽고 씩씩한 음조의 수많은 악기들이 조화로운 울림을 만들며, 훌륭한 싸움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고 격전으로 찌그러진 무기를 영원히 치워버리고 돌아온 걸출한 영웅을 영접하려는 것처럼 들렸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기에 이토록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 퍼지나 싶어 열차에서 내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는데, 한 무리의 빛나는 사람들<sup>50</sup>이 모여들어, 이제 막 강을 빠져나오는 초라한 순례자 두 사람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여행 시작 무렵 아파룬과 우리가 비웃고 조롱하며 증기를 뒤집어씌웠던, 그리고 방종한 사람들로 가득한 허화시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은 모습과 감명깊은 말로 내 양심을 휘저어놓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저 사람들, 정말로 훌륭하게 저기까지 갔군요!” 일소평탄\* 씨에게 나는 외치듯 말했다. “우리도 저들처럼 환대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걱정 마시오, 걱정 마! 자, 이리 오시오, 서두릅시다. 도강선<sup>51</sup>이 곧 떠난다오.” 일소평탄\* 씨가 말했다. “삼 분이면 강 건너편에

---

<sup>50</sup>shining ones. 게일 역본에 “Shining One”을 “광명한 사람”이라고 한 곳 이 있다. <sup>51</sup>ferry-boat. 천로역정의 마지막 장면에서 무지(Ignorance)가 허망(Vain-Hope)이 모는 ferry를 타고 강을 건너는 장면이 있다. 그 ferry가 증기선으로 대체되어 운항한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도착할 거외다. 거기 가면 천성 문까지 태워다줄 마차가 틀림없이 있을 거요.”

---

이 중대한 여정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현대적 발전의 또다른 산물인 신식 증기 도강선이 곧 출항을 알리는, 기관차와는 또다른 불쾌한 기적소리를 푹푹 내뿜으며 강변 선착장에 떠 있었다. 나는 다른 승객과 함께 서둘러 배에 올랐는데, 승객들은 대부분 당황해하며 불안해했다. 어떤 사람은 짐을 잃어버렸다고 울부짖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배가 가라앉거나 폭발할 거라고 소리쳤다. 어떤 사람은 물결의 흔들림에 벌써 얼굴이 핏색해지고, 어떤 사람은 조타수의 흥칙한 모습을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미기 땅의 줄음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몽롱한 얼굴을 한 사람도 있었다. 문득 강가쪽을 돌아보는데, 일소평탄\* 씨가 작별의 표시로 손을 흔들고 있어 깜짝 놀랐다.

“아니, 천성으로 가시는 게 아니었습니까?”

“오, 아니오.” 그는 야릇하게 미소짓고는, 어둠 계곡 주민들에게서 보았던 그 기분나쁘게 찡그리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가지 않소. 그저 댁에게 여행길의 빛이 되어주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었소. 자, 잘 가시오, 다시 만나게 될 거요.” 말을 마치고 나의 훌륭한 벗인 일소평탄\* 씨는 마구 웃음을 터트렸다. 웃는 와중에 입과 코로

연기가 소용돌이쳐 나오며 붉디붉은 화염이 그의 눈에서 이글거리며 뿜어나왔다. 그의 심장이 온통 벌겍게 타는 화염으로 이루어져 있음이 틀림없었다. 이 뻘뻘스런 놈! 지옥의 타오르는 고통이 가슴 속에서 저렇게 광란하는데도 토펫의 존재를 부인했다니!

나는 강가로 몸을 내던지려고 뱃전으로 뛰어갔다. 그렇지만 증기선의 타륜이 돌기 시작하면서 내 온몸에 물보라를 끼얹었다. 차가웠다, 너무너무 차가웠다. <죽음>이 스스로 자기 강에 빠져 죽기 전까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냉기로 온 몸이 떨리고 가슴이 내려앉았는데, 그러다가 깨어났다.

남가일몽<sup>52</sup>이었다.

---

<sup>52</sup>계일 역본 천로역정의 마지막 문장이다. 실제로 버니언의 천로역정은 화자의 꿈으로 서술되고 있다.

## 부록: 인명 지명 번역 대조

기존 한국어 번역본 A, B(출판사와 번역자명은 표기하지 않는다.)와 이 번역의 고유명사 번역을 대조한다. 버니언의 천로역정에 출현하는 인물은 제외하고 이 소설에 출연하는 인물로 한정하였다.

원문	번역 A	번역 B	이 책의 번역
Mr. Smooth-it-away	수월하게 하기	없애버려	일소평탄
Mr. Live-for-the-world	세상 위해 살기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세사
Mr. Hide-sin-in-the-heart	가슴속에 죄 감추기	마음 속에 죄악을 숨긴	심중은죄
Mr. Scaly-conscience	더러운 양심	떨어져나간 양심	미구양심
Shun-repentance	후회 안 하기	참회를 꺼리는	불기회개
Mr. Take-it-easy	만사 태평	쉬엄쉬엄 해	방심태평
Rev. Mr. Shallow-deep	얕은 깊음	얕고 깊은	유천유심 (猶淺猶深)



Rev. Mr. Stumble-at- Truth	진리에 걸려 비트적거리기	진실 앞에 말을 더듬는	진전전도
Rev. Mr. This-to-day	오늘 이것	오늘	차사금일
Rev. Mr. That- to-morrow	내일 저것	내일	피사명일
Rev. Mr. Bewilderment	당황	어리둥절한	만사당황
Rev. Mr. Clog-the-spirit	정신 막기	영혼을 가로막는	차폐영혼
Rev. Dr. Wind- of-doctrine	교리 바람	허황된 교리	설론풍설
Mr. Stick-to- the-right	옳은 일 고수하기	진리를 고수하는	고수정로
Mr. Foot-it-to- Heaven	천국 향해 걷기	천국으로 발을 내딛는	도보천행
Mr. Flimsy-faith	약한 믿음	얕박한 신념	박신

## 찾아보기

---

### 인명

거인 절망, 25

경건, 10

고수정로\*, 22, 23

기독교도, 1-3, 6-10, 12, 17,  
24-26

기독교여도, 1

담대, 5, 6, 25

도보천행\*, 23

라득의 처, 24

만사당황\*, 18

무지, 28

미구양심\*, 8

미도, 25, 26

박신\*, 25

방심태평\*, 14

번연, 2-4, 8, 10, 12, 15,  
18

별서복, 4, 5, 21

빛나는 사람들, 28

살단, 4

설론풍설\*, 18

순례자, 22

심중은죄\*, 8

아파룬, 6, 7, 10, 22, 25,  
27, 28

약한, 3, 15

양치기, 26

유천유심\*, 18

이천, 2

인생세사\*, 8

인애, 10

일소평탄\*, 1, 2, 5, 6, 8,  
10-13, 19, 22-26, 28,  
29

저마, 24

전도, 3, 12

절망, 5, 25

진전전도\*, 18

진충, 16, 17

차사금일\*, 18  
차폐영혼\*, 18  
초월주의자 거인\*, 16  
패백, 15  
피사명일\*, 18  
해살, 15  
허망, 28  
허화시, 24  
현지, 10  
효시, 8

## 지명

간난산, 9  
거점, 6, 9  
낙산, 26  
미궁, 9  
미기, 26, 29  
복락의 도성, 23  
불기회개\*, 8  
빨라, 27  
사음곡, 10, 15  
어둠 계곡, 10, 15, 29

우울니, 2  
의채, 25  
장망성, 1, 2  
좁은 문, 3, 4  
지옥으로 통하는 입구, 26  
천성, 1, 3, 4, 6, 7, 9, 13,  
14, 17, 21-24, 27, 29  
취지, 27  
토펻, 12, 30  
허화시, 16-19, 21-25, 28  
허화시의 저자, 17

## 번역자의 말

---

이 짧은 책은 Nathaniel Hawthorne (1804~1864)의 “The Celestial Railroad”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이 작품은 호손의 단편 중에서도 유명한 것이어서 별도의 해제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 번역의 관심사는 『천로역정』에 등장한 인물, 사건, 장면들이 어떻게 패러디되어 있는지에 주목하는 것이었다. 특히 인명과 지명을 1894년판 게일 역 『천로역정』과 일치시켰다. 그리고 “버니언 풍으로” 호손 자신이 등장시킨 인명 지명도 게일 역 『천로역정』 풍으로 새로 지었다. 그 대신 각 인지명에 원문의 표현을 보이고 『천로역정』 등장 인물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석을 달아서 19세기말 조선어로 번역된 작품을 읽지 않았어도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고자 하였다. 이런 발상을 하게 된 이유는, 내가 읽은 이 작품의 번역이 실제 어떤 식으로든 이미 수많은 현대어 번역이 존재하는 『천로역정』에 대한 존중도 참조도 보이지 않고 그냥 자기 식대로 번역한 듯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영어를 잘 하는 것”과 “고전의 번역사와 그 수용의 맥락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작품 자체에 관심이 있다면 이미 유명한 선생들의 훌륭한 번역이 많이 나와 있으므로 그런 것을 찾아볼 것을 권한다. 이 번역본은 취미 활동의 일부이며 이전 번역을 대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